4월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달

도교육청, 세월호 5주기 기념 다양한 추모 행사 펼쳐

전북도교육청은 4월 한 달을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달'로 정하고, '팽목항의 소리(진실을 인양하라)'라는 주제로 다양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30일까지 도교육청 1층에서 학생들이 직접 쓴 추모와 희망의 편지 '하늘나라 우체통'이 운영되며, 하늘나라 우체통에 모여진 희망편지는 도교육청 앞마당에 제작·설치되는 '떠오르는 진실의 배'에 보관하게 된다.

6일에는 도내 고등학생 35명이 진도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참사 학생과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을 기릴 예정이다.

12일 오후 7시부터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식을 갖는다.

이날 추념식에는 학생 추념위원들이 제작한 추모 영상을 비롯해, 합창, 뮤지컬, 편지낭독, 오케스트라, 플래시몹 등 추모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4월 12일~5월 31일까지 도교육청 1층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제작한 아이들의 모습과 편지글을 담은 압화 작품 '너희를 담은 시간' 전시회도 열린다.

학교에서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계기교육과 함께 희생자들을 위한 다양한 추모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봄 축제가 지난 달 28일 캠퍼스의 낭만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전주대, 캠퍼스의 낭만 '설레는 봄 축제' 개최

전주대학교 봄 축제 '청춘-설레이던 그 시절 우리'가 지난 달 28일 캠퍼스의 낭만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전주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및 중앙동아리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재학생들의 프린지 공연과 힙합 크루, WNT CREW의 무대로 시작을 알렸다.

이번 축제는 청춘-설레이던 그 시절 우리'라는 주제로 재학생들의 청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새로운 도전과 설레는 만남으로 바꿔줌과 동시에 20대를 시작하는 청춘들에게 두근거림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위해 학교 곳곳에 전공과 동아리의 특징을 살린 문화 부스가 설치되고, 연예인·단과대학 공연, 푸드트럭, 포토존, 플리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전주대 고민 상담소는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청춘, 꽃 피다'라는 이 상담소는 사연을 통해서 청춘들의 고민이나 일상적인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어른들의 섣부른 조언이나 충고가 아닌 학생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위로받고 고민을 덜었다.

축제를 관람한 학생들은 "잠시나마 공연을 즐기고, 사진도 남기면서 힐링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다양한 체험·참여 프로그램이 많아서 축제의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내일부터 9일까지 단과대학별로 평화관, 진리관, 자유관 등지에서 재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축제를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 베트남 수자원대학 '글로벌 인재 육성' 합의 체결

전주대학교는 지난 달 27일 베트남 수자원대학교(Thuyloi University, 이하 수자원대)와 '기계시스템공학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MOA(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수자원대(Thuyloi University) 찡 밍 투(TRINH MINH THU) 총장과 도안 옌 테(DOAN YEN THE) 국제교류원장 겸 기계공학과 학과장, 전주대 이호인 총장, 류인평 국제교류원장 등 두 학교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주대와 베트남 수자원대학은 지난해부터 재학생 교육역량 강화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로 합의했으며, 베트남 교육 일정에 맞춘 올해 9월부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2+2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양 기관의 합의각서에 따라서 수자원대 1, 2학년 학생들은 베트남에서 전주대 한국어교육을 지원받고 3, 4학년들은 전주대에서 기계시스템공학과 전공 및 실습 수업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은 전주대학교 졸업장을 받는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최근 눈부신 선장을 거듭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글로벌 인재 육성이다"며, "우리 대학이 선도적으로 한-베 글로벌 인재육성하고 그들과 연구실적과 교육 커리큘럼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두 대학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교육 커리큘럼 및 교수인력 공유 등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기계시스템공학과 뿐만 아니라 스마트미디어학과, 전기전자학과 등에서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기로 논의 했다.

한편, 베트남 수자원대학은 베트남 농업개발부 산하 베트남 상위권 국립대학으로 기계공학, 정보 시스템, 수자원, 수력 등 전문화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은성 기자

부안 내변산과 외변산을 달리는 전국 사이클·산악자전거대회가 오는 7일 부안군에서 열린다.

봄기운 가득 은륜에 담아 달린다

전국 사이클·산악자전거대회, 7일 부안서 팡파르

봄기운 가득 은륜에 담아 부안 내변산과 외변산을 달리는 전국 사이클·산악자전거대회가 오는 7일 부안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부안군자전거연맹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 기원 제1회 부안새만금잼버리 메디오폰도 대회를 새만금과 변산반도 등 부안군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부안군자전거연맹이 주최하고, 전북자전거연맹과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며, 후안군과 부안경찰서, 부안체육회, 대한자전거연맹 등이 후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23세계잼버리대회를 계기로 조성된 좋은 도로 조건과 변산반도의 봄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 전국 동호인의 건강, 부안군 경제 활성화 등에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

7일 오전 9시30분에 부안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한 코스(90KM)는 도화사거리→우슬재→바드재→마동삼거리→부안누에타운→변산대명리조트→하섬전망대→고사포→중계터널→스포츠파크다.

외변산과 내변산의 아름다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변산반도 코스는 전국 자전거 매니아들에게 처음으로 알리는 코스로 365일 이용 가능한 국내 최고의 대회코스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안자전거연맹과 부안군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스포츠안전재단의 주최자배상책임공제보험을 가입했고, 바드재 정상(27.6km)과 하섬전망대(59km) 등 3개 지점에 음료와 의약품을 비치하고, 안전요원 등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대현 부안자전거연맹회장은 "이번 대회는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와 부안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변산반도를 알리고 동호인들의 건강도 다지기 위해 준비했다"면서 "내변산과 외변산의 아름다운 코스는 앞으로 부안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참가는 대회공식 홈페이지(www.bikelife.cycling.or.kr)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 5만원(고글, 중식, 보험, 보급식, 완주메달)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의 미래 '한눈에'

도교육청, 중·장기적 발전방향 담은 '전북교육 발전계획' 발간

전북도 교육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과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전북교육 발전방향을 제시·공유하기 위한 '2019~2028 전북교육 발전계획'을 발간·배부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 발전계획은 2019~2022년까지 추진할 중기과제와 2023~2028년까지 추진할 장기과제로 나누어, 중기과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계획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 수립 방향은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원칙으로 삼았다.

책자는 총 7장으로 구성돼 1~4장에서는 대내외 교육환경 여건과 전라북도 교육환경 및 현황, 전라교육 주요 정책 등을 소개한다.

이어 5~7장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교육 2030' 프로젝트, 농생명 산업과 교육 등 미래 교육을 전망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발간사를 통해 "'2019~2028 전북교육 발전계획'은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담긴 귀중한 지침서"라면서 "전북교육 정책이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전북교육 발전계획이 균형추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 발전계획은 직속기관·지역교육청·공공도서관 등에 배부되며, 도교육청 홈페이지(정책공보관→부서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